

## 필리핀 보홀 지역의 생태관광 실태분석

김진선<sup>1</sup> · 이지엽<sup>1</sup> · 김의경<sup>2\*</sup> · 신혜진<sup>1</sup> · 윤여창<sup>3</sup>

### A Case Study on Ecotourism in Bohol, Philippines

Jin-Seon Kim<sup>1</sup> · Ji-Yeop Lee<sup>1</sup> · Eui-Gyeong Kim<sup>2\*</sup> · Hye-Jin Shin<sup>1</sup> and Yeo-Chang Youn<sup>3</sup>

#### 要 約

본 연구는 보홀 관광객의 이용행태가 생태관광객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각 생태관광지의 특징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홀 지역의 생태관광 실태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홀은 초콜릿 힐, 안경원숭이 서식지, 망그로브 등 독특하고 희귀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활동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생태관광 관련 프로그램이나 가이드의 활동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홀 방문객들은 아름다운 경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일반 대중관광객과 같이 높은 시설 수준을 기대하여 생태관광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보홀 사례를 통해 국내 생태관광 관리전략 수립에 있어서 단순히 '생태관광' 용어를 내세운 관광지 홍보보다는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여행행동을 요구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러한 원칙을 반영한 생태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로써 생태계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관광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 ABSTRACT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Bohol Ecotourism by judging whether Bohol's tourists have the characteristic of Ecotourists and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 and problems of Bohol Ecotourism sites. Bohol has rare, unique and fascinating sites like Chocolate Hills, Tarsier Sanctuary, Mangrove and so on. Bohol continues the efforts to promote ecotourism by utilizing these natural resources. However, the public relations activities are limited in certain areas and Ecotourism programs or tourism field guides are also insufficient. The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 of Bohol tourists. The survey showed that Bohol tourists sympathize with the beautiful natural

<sup>1</sup> 경상대학교 대학원 산림자원학과 Major of Forest Resource, Graduate School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660-870, Korea

<sup>2</sup> 경상대학교 환경산림과학부(농업생명과학연구원) Division of Environment forest Resource(Institut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660-870, Korea

<sup>3</sup>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 Department of Forest Resour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Corresponding author : E-mail) egkim@gnu.kr

landscape, but expected the higher level of facilities like general public tourists. It is thought that they still lack all understanding of ecotourism. According to the Bohol case, when establishing the domestic ecotourism strategy, it is important to give people consciousness on sustainable and responsible travel behavior rather than promote it. This will make the authentic eco-tourism happen and the ecosystem will be kept in balance.

*Key words : Ecotourism, Ecotourist, Bohol*

## I. 서 론

환경은 관광의 기반이자, 핵심관광자원으로서 관광상품의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적절한 계획 수립 없이 시행된 관광개발은 자연환경의 가치를 감소시켰다. 동일 지역에 관광객이 집중됨으로써 환경파괴 및 오염을 수반하였고, 자연경관지는 상업적인 개발로 황폐화되었다. 이는 다름 아닌 양적 성장위주의 대중관광 형태가 가져온 역기능이다(조재문, 1999). 이에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은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는 생태패러다임으로 전환·발전되면서 기존 대중관광의 대안적 관광으로 생태관광이 등장하게 되었다(조진희·김수봉, 2007).

많은 학자들과 관련단체 및 기관에서 생태관광의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세계관광기구(WTO)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생태관광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단인 동시에 개별 및 소규모 단체 관광객이 교육적 방법으로 자연지역을 방문하는 특정 관광활동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생태관광 퀘벡선언은 생태관광의 고유한 원칙을 첫째, 자연 및 문화 유산의 보전에 적극 기여하고, 둘째, 계획, 개발, 운영 과정에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셋째, 관광객들에게 자연 및 문화 유산을 해설하고, 넷째, 개별 여행객과 소규모 단체 여행객에게 적합한 관광으로 규정했다. 생태관광은 1990년 이후 매년 30% 이상 성장해 왔으며(세계관광기구, WTO), 국제연합기구

인 UN(United Nations)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 분야로서 생태보전과 지역민의 편익을 추구하는 대안적 관광인 생태관광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2002년을 세계 생태관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Ecotourism)로 지정한 바 있다.

생태관광객은 모든 사람의 유산인 자연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견지에서 보존을 위한 수단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계몽된 여행자(Jenner and Smith, 1992)로 가정된다. 선행연구에서 생태관광객은 대중관광객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생태관광객은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30세 이상이며 남녀는 같은 비율을 나타내고 환경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가이드를 동반한 소규모 그룹 관광을 한다(TIAA, 1992). 생태관광객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생태관광객은 연령과 성비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고소득, 고학력, 전문·관리적 종사자가 생태관광에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미희 등, 2002; 조진희 등, 2007). 또한 여행태도 및 방문동기에 있어서 생태관광객은 다른 일반관광객과 마찬가지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여행을 떠나지만, 건강이나 동반자들과의 친목도모 혹은 소속감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대신에 여행을 통해 활동적인 생활을 경험하고 자연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크다고 강미희 등(2002)은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지인 필리핀 보홀(Bohol)은 인근의 세부(Sebu)에 비해 덜 알려진 곳이지만 아름다운 해변과 야생동물, 산호초와 열대어 등 풍부한 생태자원을 보유한 관광지이다. 2010년에 보홀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총 334,212명으로 그 전년도에 비해 6.02% 증가하였다(필리핀 관광청, 2011). 1999년에는 생태관광회의(National Ecotourism Congress)가 필리핀 내에서 처음으로 보홀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를 통해 생태관광 국가 전략(National Ecotourism Strategy : NES)이 수립되었다. 보홀에서 현재 비정부기구, 지역주민, 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을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Ecotourism Framework Plan of Bohol 2006~2015) 등을 수립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홀 관광객의 이용행태가 생태관광객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선별연구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각 생태관광지의 특징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홀 지역의 생태관광 실태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생태관광의 지속가능한 관리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연구방법

보홀 현지 생태관광지의 특징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필리핀 관광청 홈페이지를 통한 문헌조사 및 현장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보홀 관광객의 행태 및 특성을 분석하고자 설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비용·시간상의 제약으로 보홀 방문객 59명을 편의표본추출하여 2012년 2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 이를 동안 보홀 공항과 팡라오 섬에서 실시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전체 보홀 관광객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례조사(case study)’로서 보홀 생태관

광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기본적으로 관광객의 연령, 성별, 직업 등 사회경제적 특성과 여행목적, 동반자수, 여행기간 등 여행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추가적으로 보홀 생태관광지의 방문의사, 만족도, 만족·불만족 요인을 질문하였다. 설문결과는 SPSS 18.0으로 빈도분석, 교차분석, t 검정, 맨-휘트니의 U검정,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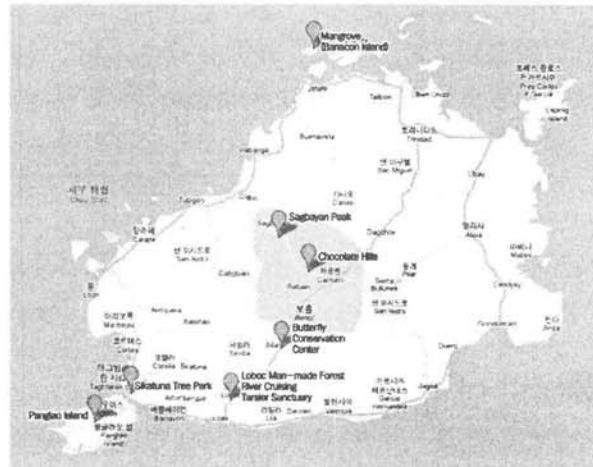
## III. 결과 및 고찰

### 1. 보홀 생태관광지의 특징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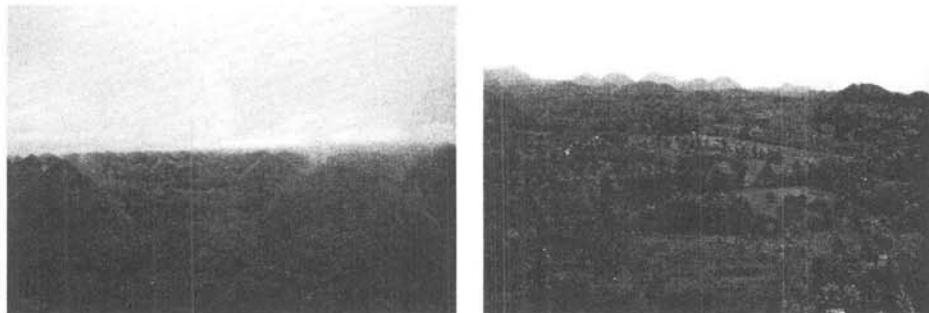
보홀은 필리핀 내 10번째로 큰 섬으로 인구는 약 114만 명이며, 면적은 4,117km<sup>2</sup>이다. <그림 1>은 보홀에 위치한 주요 생태관광지의 위치를 나타낸 지도이다.

#### 1) 초콜릿 힐(Chocolate Hills)

보홀 최고의 관광명소로 해발 40~100m 원뿔 모양의 1,268개 언덕들이 면적 50km<sup>2</sup> 이상을 덮고 있다. 지질학적으로 얇은 열대 바다의 산호초 퇴적층이 융기하여 유품이 된 후에 산호 퇴적으로 형성되었던 석회질 지층이 빗물에 녹아 침식되면서 이런 독특한 모양의 지형을 형성하였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지형에 속해 2006년 유네스코(UNESCO Cultural Heritage)에 등록되어 있다. 우기에는 풀이 초록빛을 유지하다가 건기를 맞이하면서 말라서 갈색으로 보이는데 이는 달콤한 거대 키세스 초콜릿을 연상케 하는 데서 ‘초콜릿 힐’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희귀한 생태자원으로 생태관광객들이 선호할 만한 최고의 장소지만 전망대에 올라 단순히 경관을 감상하고 사진을 찍는 것 외에는 특별한 체험활동이 없다. 또한 가이드의 설명이나 안내 해설판이 없어 자연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중요시하는 생태관광객(강미희 등, 2002)들에게 아쉬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그림 1> 보홀의 주요 생태관광지 위치



<그림 2> 초콜릿 힐(Chocolate Hills)

### 2) 팡라오 섬(Panglao Island)

보홀은 ‘아시아의 홍해(red sea)’라고 불릴 만큼 바닷물이 맑아 가시거리가 좋은데다가 파도가 잔잔해 수많은ダイ버를 불러 모으고 있다. 보홀에는 크고 작은 부속 섬이 많은데 그 중 여행객들이 특히 많이 찾는 곳은 팡라오 섬이다. 2004년에 ‘Panglao Marine Biodiversity Project’를 통해 팡라오의 해양 생물다양성이 일본, 지중해보다 더 풍부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팡라오 주변 약 15,000ha에서만 1,200종의 십각류(새우·개 등)와 6,000종의 연체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는 지중해의 300배 만ha에서 2,024종이 서식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풍부한 생태자원을 보유한 것을 알 수 있다(유네스코, 2003). 팡라오 섬은 맑고 깨끗한 물, 울긋

불긋한 산호 군락,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를 볼 수 있는 세계 10대 다이빙 포인트 중 하나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다이빙 활동으로 인해 해양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3) 안경원숭이 서식지(Tarsier Sanctuary)

안경원숭이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영장류 중 하나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은 잘 보전된 환경에서만 서식할 수 있는데 필리핀의 사마르, 레이떼, 민다나오 일부에서도 발견되지만 특히 보홀에서 그 개체수가 가장 많다. 보홀은 안경원숭이의 서식지이자 그 보호를 위해 가장 노력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보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꼭 이곳에 들른다. 곧 안경원숭이는 보홀을 상징하

는 마스코트로서 이를 활용한 열쇠고리, 티셔츠 등 다양한 관광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에 의한 소음 및 카메라 플래쉬 발생으로 야행성인 안경원숭이가 스트레스를 받아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 이들의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관리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4) 로복 인공림(Loboc man-made forest)

화전으로 인해 산림이 파괴된 황폐지에 1950년도부터 마호가니, 티크 등을 식재하여 인공림으로 조성하였고, 현재 수원함양기능을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잘 보전된 이 인공림은 수원함양기능 뿐만 아니라 생태관광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로복(Loboc)시에서는 시 이름을 붙여 'Loboc Man-made Forest'로 명명함으로써 활발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황폐화된 산림생태계 복원을 통해 안경원숭이(Tarsier)와 나비 등 다양한 야생생물체의 서식처로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Loboc Man-made Forest'라는 표지판 이외에 인공림 조성 배경, 현황, 인공조림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 5) 로복 강 투어(Loboc River Cruising)

모터가 달린 커다란 뗏목처럼 보이는 크루즈선을 타고 로복 강을 유람하는 코스로 간단한

현지식 뷔페가 준비되어 있다. 로복 강은 총 길이가 약 21km로 보홀에서 가장 큰 강이다. '필리핀의 아마존'이라 불릴 만큼 거대하고 수목 또한 울창하다. 일명 로복강 사파리 크루즈라고 하는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 안에서 로복강 주변의 원주민 마을의 생활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로복강 투어는 다이나믹함보다는 편안하고 한가롭게 강과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 6) 나비 보호 구역(Butterfly Conservation Center)

200여 종의 나비와 나방들을 직접 보고 만지며 체험할 수 있는 나비박물관과 같은 곳이다. 나비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여 조성하였으나 안경원숭이 서식지와 마찬가지로 이 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보호와는 거리가 다소 멀다.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 가이드가 나비와 나방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주지만,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의식을 심어주진 않는다. 오히려 나비를 기절시킨 후 다시 날려 보낸다거나, 유리판에 있는 나비표본을 이용해 마치 관광객들의 등에 나비날개를 달아 하늘을 나는 듯한 사진을 찍어주는 등 관광에 치중된 활동들이 주를 이룬다. 관광객에게 흥미는 줄 수는 있지만 생태관광지로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생태자원의 관리 보호 대책이 새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3> 로복 인공림(Loboc man-made forest)

### 7) 바나콘 섬(Banacon Island)의 망그로브(Mangrove)

바나콘 섬의 망그로브 숲은 Getafe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1957년부터 조성되어 지금은 약 425ha가 조성되어 있다. 망그로브는 열대, 아열대 지역의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장소에 생육하는 열대성 식물이다. 망그로브 숲 조성을 통해 조개, 게, 새우, 연체동물, 갑각류 등 다양하고 풍부한 해안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망그로브 숲의 경관은 특히 이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들에게 그 자체만으로도 큰 감명을 준다. 생태관광지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있는 곳이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 8) 시카투나 나무 공원(Sikatuna Tree Park)

자연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 균형을 유지한다는 목적 하에 관리되고 있는 공원이다. 공원 이름에 걸맞게 잔디, 허브, 관목 등 다양한 야생식물로 이루어진 숲이 조성되어 있다. 100평소를 지불하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모인 돈은 공원을 유지하고, 종묘원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특히 새들의 서식지로서 다양하고 평소에 볼 수 없는 희귀한 새들도 볼 수 있으며, 캠프사이트를 제공하

여 생태체험학습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 9) 삭바얀 피크(Sagbayan Peak)

초콜릿 힐에서 약 18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리조트 형태의 관광지이다. 초콜릿 힐에서보다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언덕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 바다도 구경할 수 있다. 이 리조트는 관광객들을 위한 여러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터, 스낵바, 식당 등의 부대시설과 나비, 안경원숭이들을 볼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또한 초콜릿 힐 봉우리에서 새들을 구경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자연감상보다는 인공 시설을 이용한 체험활동에 치중되어 있어 생태관광지보다는 대중관광지에 더 가까운 것으로 사료된다.

<표 1>은 보홀 생태관광지를 중심으로 각 항목에 대해 평가한 결과이다. 보홀은 희귀하고 다양한 생태자원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보홀 자체적으로 활발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몇몇 관광지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생태관광과 관련한 체험프로그램이나 생태해설, 안내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생태관광이 단순히 자연 감상 수준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림 4> 바나콘 섬(Banacon Island)의 망그로브(Mangrove)

&lt;표 1&gt; 보홀 생태관광지 특징

관광지	생태 자원 다양성	생태 자원 희귀성	자연 경관	체험 프로그램	생태해설 및 안내시설	인공 시설	홍보
Chocolate Hills	○	○	○	△	△	○	○
Panglao Island	○	○	○	○	X	□	○
Tarsier Sanctuary	○	○	□	○	○	□	○
Loboc Man-made Forest	○	□	○	△	X	X	○
Loboc River Cruising	○	○	□	○	X	○	○
Butterfly Conservation Center	○	□	□	○	○	○	□
Mangrove	○	○	○	○	X	X	△

주 : 저자가 방문한 생태관광지를 중심으로 각 요인에 대해 평가함.

○ : 매우 긍정 ○ : 긍정 □ : 보통 △ : 부정 X : 매우 부정

이를 위해 ‘생태관광’이라는 이름만을 붙여 마케팅 수단으로만 이용하기보다 관광객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고취를 위한 전문적인 가이드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철(2000)은 자연관찰 이전에 전문가의 해설이 선행되면 교육적 성과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자연대상을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보다 해설을 동반한 이해는 관광객들에게 훨씬 즐거움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생태계 탐구를 통한 환경의식 함양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관광은 자연자원과 그 체험을 위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현지에 익숙하고 오랜 경험을 지닌 지역 주민이 최상의 가이드가 될 수 있다. 부득이하게 가이드를 배치할 수 없는 곳에는 해설판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써 관광객에게 환경과 자연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생태계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관광활동을 즐기는 진정한 생태관광의 형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생태관광지에도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다.

## 2. 설문결과 및 고찰

### 1) 보홀 관광객의 사회·경제적 특성

필리핀 보홀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연령에 있어 20대가 전체의 58.5%로 가장 높았고, 여자가 63%로 남자보다 더 많았으며, 필리핀 자국민의 비율이 55.6%로 외국인보다 약간 많았다. 직업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회사원과 전문직이 54.3%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본 연구의 필리핀 보홀 관광객은 20대가 주를 이루고, 직업에 있어서 회사원/전문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데이터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생태관광객은 상대적으로 고소득, 고학력을 가진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많다는 선행연구(강미희 등, 2002; 조진희 등, 2007)에 기초하여 판단해볼 때 일부 생태관광객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보홀 관광객의 여행특성

방문목적은 가족·친지방문이 5.6%, 관광이 83.3%, 출장이 11.1%로 대부분 관광을 목적으로 보홀을 방문하였다. 보홀에 가는 이동수단으로 비행기와 배를 이용하였는데 각각 49.1%,

&lt;표 2&gt; 보홀 관광객의 사회·경제적 특성

항목		빈도(명)	비율(%)	항목		빈도(명)	비율(%)
연령	20세 미만	1	1.9	직업	공무원/교사	5	10.9
	20~29세	31	58.5		기술자	2	4.3
	30~39세	10	18.9		회사원	11	23.9
	40~49세	5	9.4		어업	1	2.2
	50~59세	2	3.8		영업직	1	2.2
	60세 이상	4	7.5		자영업	1	2.2
	평균 연령 = 31.9±12.8세				전문직	14	30.4
성별	남	20	37.0		학생	8	17.4
	여	34	63.0		무직	3	6.5
국적	내국인(Filipino)	30	55.6				
	외국인(Foreigner)	24	44.4				

50.9%로 그 비율이 비슷하였으며, 여행을 할 때 동반자수는 평균 3.5(±3)명으로 2~3명의 소그룹이 55.6%로 가장 많았다. 여행기간은 2~4일이 68.5%로 주로 단기간의 관광객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 보홀 관광객은 주로 동반자수가 2~3명으로 소그룹 형태이고 여행기간에 있어 2~4일의 단기여행객이 대부분으로, 소규모 그룹형태의 관광을 선호하는 생태관광객(김대

&lt;표 3&gt; 응답자의 여행특성

항목		빈도(명)	비율(%)
방문목적	가족·친지 방문	3	5.6
	관광	45	83.3
	출장	6	11.1
이동수단	비행기	26	49.1
	배	27	50.9
동반자수	본인 혼자	4	7.4
	2~3명	30	55.6
	4~5명	17	31.5
	10명 이상	3	5.6
	평균 동반자수 = 3.50±3.00(명)		
여행기간	당일	3	5.6
	2~4일	37	68.5
	5~9일	7	13.0
	10일 ~ 19일	4	7.4
	20일 이상	3	5.6
평균 여행기간 = 5.78±7.35(일)			
여행경비	내국인(Filipino)	5,705.51±3,518.86(peso)	
	외국인(Foreigner)	6,027.24±2,984.19(peso)	
	평균 여행경비 = 6,661.76±3,731.93(peso)		

권 등, 1998)의 특성을 일부 보유하고는 있으나 여행기간이 비교적 긴 생태관광객(Boo, 1990; Fennell · Eagles, 1990; Meric · Hunt, 1998; Hvengard · Dearden, 1998)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뷰 결과, 관광객들이 여행을 계획할 때 보홀 인근에 위치한 세부를 주 여행지로 선정하여 보홀은 세부를 가기 전 2~4일 정도 잠시 머물렀다 가는 정도에만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패키지 상품도 대부분 보홀 단독 패키지 상품보다 세부와 연계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3) 보홀 주요 생태관광지에 대한 방문의사 및 만족도

<표 4>는 보홀에 위치한 주요 생태관광지의 방문의사 및 만족도 결과이다. 방문의사는 초콜릿 힐, 팡라오 섬, 안경원숭이 서식지가 각각 88.24%, 82.35%, 76.47%로 높았다. 이에 반해 시카투나 나무 공원, 삭바얀 피크는 각각 21.57%, 망그로브는 23.53%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희귀하고 독특한 자연경관을 보유하여 생태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는 곳이지만 상대적으로 방문의사가 낮았다. 초콜릿 힐, 팡라오 섬, 안경원숭이 서식지는 보홀에서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관광지로 보홀 곳곳에서 이들과 관련한 대형 홍보판이나 관광상품을 쉽게 볼 수 있다. 방문의사가 낮은 세 곳의 경우 홍보가 덜 이루어져 응답자가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홍보 부족으로 덜 알려진 곳임에도 방문의사를 나타낸 관광객은 여행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한 후 여행을 떠나는 경향이 있는 생태관광객(강미희 등, 2002)의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각 생태관광지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초콜릿 힐이 5.91점으로 가장 높았고, 삭바얀 피크가 4.18점으로 가장 낮았다. 삭바얀 피크를 제외하고 7점 리커트 척도에서 모두 5점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보홀의 각 생태관광지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보홀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 만족도는 보홀 전체 만족도로 각 생태관광지의 만족도의 평균값이다. 각 그룹별로 데이터 수가 작아 정규성을 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모수적 검정인 맨-휘트니의 U검정과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모두 유의수준 10%에서도 유의확률(p-value) 값이 더 크게 나와 성별, 국적, 소득여부, 방문

<표 4> 보홀의 주요 생태관광지에 대한 방문의사 및 만족도

관광지	방문의사(%)	만족도
Chocolate Hills Complex	88.24	5.91
Panglao Island	82.35	5.52
Tarsier Sanctuary	76.47	5.87
Loboc Man-made Forest	72.55	5.35
Loboc River Cruising	66.67	5.24
Butterfly Conservation Center	52.94	5.37
Mangrove	23.53	5.33
Sikatuna Tree Park	21.57	5.09
Sagbayan Peak	21.57	4.18

주 : 만족도는 1점(매우 불만족)부터 7점(매우 만족)으로 구성된 7점 리커트 척도 결과임.

&lt;표 5&gt; 보홀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만족도 차이

구 분		보홀 만족도	검정통계량	p-value
성별	남	5.58	$t = -1.11$	0.91
	여	5.62		
국적	내국인(Filipino)	5.42	$t = -0.86$	0.39
	외국인(Foreigner)	5.70		
소득여부	소득없음	5.36	$U = 119.50$	0.26
	소득있음	5.75		
방문목적	관광	5.60	$U = 145.00$	0.42
	관광이외	5.61		
여행기간	당일	4.81	$H = 1.36$	0.51
	2~9	5.73		
	10일 이상	5.26		
동반자수	혼자	5.73	$H = 1.36$	0.51
	2~3명	5.65		
	4~5명	5.42		
	10명 이상	5.86		

주 : 보홀 만족도는 보홀 각 생태관광지의 만족도 평균값임.

U는 맨-휘트니 검정통계량, H는 크루스칼-왈리스 검정통계량을 의미함.

목적, 여행기간, 동반자수에 따라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예상과 달리 각 특성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 보홀 관광객 개개인의 성향차이가 없다기보다는 케이스 수가 작아 차이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 4) 보홀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만족률

##### (1) 보홀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만족률

<표 6>은 보홀 관광객의 사회·경제적 및 여행 특성에 따른 요인별 만족률의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풍경의 만족률이 6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자연을 체험하기 위해 여행에 참여하는 생태관광객(Meric&Hunt, 1998)의 성향과 유사점이 발견

되었다. 하지만 시설의 만족률은 12.5%로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가장 낮게 나타났다. 김정연(1995)의 연구에서 생태관광객은 기존 관광객과는 달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대상지역의 자연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므로 생태관광지의 낮은 시설 수준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관광객이라 설명하였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보홀 방문객들은 아름다운 경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일반 대중관광객과 같이 높은 시설 수준을 기대하여 생태관광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에 있어 20~30대가 40세 이상인 관광객에 비해 풍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풍경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또한 5명 이하의 소그룹

&lt;표 6&gt; 보홀 관광객의 사회·경제적 및 여행 특성에 따른 요인별 만족률 (단위 : %)

구분		풍경	서비스	가격	시설	교통수단	음식	기타
전체		68.8	39.6	45.8	12.5	16.7	33.3	4.2
연령	29세 미만	78.6	39.3	42.9	7.1	21.4	35.7	0.0
	30~39세	70.0	60.0	60.0	20.0	10.0	40.0	10.0
	40세 이상	44.4	22.2	44.4	22.2	11.1	22.2	0.0
성별	남	63.2	31.6	42.1	15.8	26.3	26.3	5.3
	여	72.4	44.8	48.3	10.3	10.3	37.9	3.4
국적	내국인	64.0	52.0	48.0	8.0	16.0	28.0	0.0
	외국인	73.7	21.1	47.4	15.8	21.1	31.6	10.5
방문목적	관광	68.4	39.5	52.6	15.8	18.4	39.5	2.6
	관광이외	77.8	44.4	22.2	0.0	11.1	11.1	0.0
여행기간	1~4일	68.8	39.6	45.8	12.5	16.7	33.3	4.2
	5~9일	75.0	50.0	33.3	0.0	0.0	41.7	8.3
동반자수	1~3명	72.4	44.8	41.4	6.9	10.3	31.0	3.4
	4~5명	73.3	33.3	60.0	20.0	33.3	46.7	0.0
	10명 이상	33.3	33.3	33.3	33.3	0.0	0.0	0.0

주 : 각 요인에 대한 다중응답 결과임.

&lt;표 7&gt; 보홀 생태관광별 만족요인 (단위 : %)

관광지	풍경	서비스	가격	시설	교통수단	음식	기타
Chocolate hill	65.8	39.5	50.0	13.2	13.2	26.3	2.6
Panglao Beach	66.7	36.1	50.0	8.3	11.1	25.0	2.8
Tarsier Conservation Center	66.7	39.4	54.5	12.1	15.2	24.2	0.0
Loboc Man-made Forest	71.9	37.5	53.1	12.5	18.8	25.0	0.0
River Cruising	64.3	39.3	60.7	14.3	14.3	28.6	0.0
Butterfly Conservation Center	72.7	27.3	59.1	13.6	13.6	27.3	0.0
Mangrove	66.7	22.2	44.4	11.1	0.0	11.1	0.0
Sikatuna Tree Park	77.8	33.3	66.7	22.2	0.0	33.3	0.0
Sakbayan Park	66.7	11.1	55.6	11.1	0.0	33.3	0.0

주 : 각 요인에 대한 다중응답 결과임.

여행객이 10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들보다 풍경에 대한 만족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에 있어 국적에 따라 필리핀 자국민은 52.0%가 만족하였으나 외국인은 21.1%만이 만족함을 나타냈다. 이는 외국인의 경우 필리핀 사람들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았으나

이에 미치지 못했거나 또는 문화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교통수단은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모두 교통수단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교통수단 시설 자체의 불편함보다는 관광지까지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기타 만족요인에 대한 의견

으로는 ‘다이빙(diving)’ 등이 있었다.

<표 7>은 보홀 생태관광지별 만족요인을 나타낸 결과이다. 각 생태관광지에서 풍경에 대한 만족률이 가장 높았는데, 특히 시카투나 나무 공원에서 77.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만족률이 높은 요인은 가격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시설,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률은 낮게 나타났다. 각 생태관광지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반적으로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보홀 관광객의 이용행태가 생태관광객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선별연구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각 생태관광지의 특징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홀 지역의 생태관광 실태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홀은 초콜릿 힐, 안경원숭이 서식지, 광라오 섬, 망그로브 등 독특하고 희귀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생태관광지로서 각광을 받는 곳이다. 아름다운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보홀 자체적으로 활발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보홀 생태관광지의 특징 및 문제점을 고찰한 결과, 홍보활동이 일부 생태관광지에 국한되어 있었다. 또한 생태관광 관련 프로그램이나 가이드의 활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는 표본 수가 작고 편의표본추출을 하였기 때문에 보홀 관광객 전체를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사례조사(case study)로서 의미가 있다. 조사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홀 관광객의 행태 및 특성을 살펴보면 직업에 있어서 회사원/전문직이 많았으며, 소그룹의 단기여행객이 많았다. 보홀 각 생태관광지에 대한 만족도는 한 곳을 제외하고 7점 리커트 척도에서 5점 이상으로 높았으며, 그 만족요인으로 풍경의 만족률이 68.8%

로 높게 나타났다. 소그룹의 회사원/전문직이고, 자연감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일부 관광객에서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자연을 체험하기 위해 여행에 참여하는 생태관광객(Meric&Hunt, 1998)의 특성과 유사점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설과 교통수단에 낮은 만족감을 표시하여 선별연구를 기초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보홀 방문객들은 아름다운 경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일반 대중관광객과 같이 높은 시설 수준을 기대하여 생태관광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보홀은 생태관광지로 특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활발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보홀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생태관광에 대한 이해도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관광이 단순히 자연 감상 수준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생태관광’이라는 이름만을 붙여 마케팅 수단으로만 이용하기보다 관광객들의 환경보호 의식 고취에 초점을 맞춘 전문적인 가이드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득이하게 가이드를 배치할 수 없는 곳에는 해설판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생태관광 통계 조사(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태관광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생태관광 인지도에서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이 64.0%에 이르렀다. 현시점 국내 생태관광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활발한 홍보활동은 중요한 생태관광 정책과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보홀 지역의 생태관광 사례를 통해 단순히 ‘생태관광(Ecotourism)’ 용어를 내세운 관광지 홍보보다는 지속적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책임 있는 여행행동을 요구하는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들이 반영된 생태관광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로써 생태계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관광활동을 즐기는 진정한 생태관광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산림청 ‘기후변화대응 연구사업단(과제번호 : S210912L010100)’의 지원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필리핀 열대림 현장실습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설문지 작성 및 연구방향설정 등에 참여해 준 이승경(일본 동경 농공대학 지역생태시스템학과), 이훈택(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 학생과 설문조사자료의 수집에 도움을 준 ‘필리핀 열대림 현장실습’ 전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인용 문헌

1. 강미희 · 김남조 · 최승담. 2002. 대중관광객과의 비교를 통한 생태관광객의 차별적 특성 규명. 관광연구 17(2) : 157-175.
2. 김대권 · 김영태. 1998. 생태관광에 관한 이론적 고찰. 관광정책학연구 4(1) : 21-39.
3. 김정연. 1995. 생태관광의 국립공원에의 도입을 위한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p.
4. 문화체육관광부. 2010. 생태관광 통계조사. 67p.
5. 정철. 2000. 대중관광객과의 비교를 통한 생태관광객의 동기, 체험, 만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3p.
6. 조재문. 1999. 환경관광의 수요유진전략에 관한 연구. 관광 · 레저연구 11(2) : 127-160
7. 조진희 · 김수봉. 2007. 관광태도로 분류한 생태관광객과 대중관광객의 특성 비교. 관광 · 레저연구 19(1) : 27-43.
8. Boo, E. 1990. Ecotourism : The Potentials and Pitfalls. Vol(1). World Wildlife Fund. Washington D. C.
9. Eagles, P. F. J. 1992. The travel motivations of Canadian ecotourist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1(2) : 3-7.
10. Jenner, P. and Smith, C. 1992. The Tourism Industry and the Environment.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Special Report No. 2453.
11. Fennell, D. A. & Eagles, P. F. J. 1990. Ecotourism in Costa rica : A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Parks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8(1) : 23-34.
12. Hvenegaard, G. T. & Dearden, P. 1998. Ecotourism versus tourism in a Thai National park. Annals of Tourism research 25(3) : 700-720.
13. Meric, H. J. & Hunt, J. 1998. Ecotourists' motivation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A case of North Carolina Traveler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6(spring) : 57-61.
14. UNESCO. 1998. Chocolate Hills Natural Monument. <http://whc.unesco.org/en/tentativelists/5024/>
15. UNESCO. 2003. Panglao Island, Bohol. <http://whc.unesco.org/en/tentativelists/5027/>
16. The Department of Tourism(DOT). <http://www.tourism.gov.ph>
17. TIAA(Travel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1992. Discover America : Tourism and the Environment. 27-28pp.